

세련된 디자인에 경제성·상품성 하이브리드 이어 가솔린모델 '질주'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지난달 6582대 판매... 싼타페 추격 하이브리드모델, 뛰어난 정속성 자랑 가솔린모델, 역동적 주행성능 발휘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을 이끌고 있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경제성·상품성을 앞세워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의 효자 상품이다. 내수판매는 1년 전보다 300%가량 증가했는데 10대 중 9대는 그랑 콜레오스다. 과거 르노코리아가 출시한 중형 세단 SM6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당시 SM6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효율을 앞세워 한때 현대차의 쏘나타의 판매량을 넘어이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그랑 콜레오스가 6582대 판매되며 현대차 싼타페(7576대)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특히 E-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가솔린 모델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최근 출시된 가솔린 모델의 시승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차이점을 확인했다.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1.64kWh 배터리를 결합한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마력 복합 15.7km/L대 효율을 발휘한다. 가솔린은 2.0L 터보 엔진으로 211마력의 출력을 내고 2WD는 7단 습식 DCT 변속기를 보그워너의 6세대 4WD를 탑재한 사륜구동 버전은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를 썼다. 복합 연비는 각각 11.1km/L, 9.8km/L다.

정속성은 두 모델 모두 뛰어났지만 굳이 선택하려면 하이브리드에 한표를 주고 싶다. 전기 모드 주행을 비롯해 전체적인 주행 순간 뛰어난 정속성을 자랑했다. 특히 도심이나 가까운 거리는 배터리 동력만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

어 전기차의 감성도 즐길 수 있다. 가솔린 4WD 모델은 장거리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묵직한 주행감을 선사한다. 또 와인딩 구간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흔들림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간다. 여기에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고성능 SUV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은 가솔린이 3495만~4345만원, 하이브리드가 3777만~4352만원이다. 만약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매를 고려한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된다. 내년부터 정부의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차량센싱 솔루션 사업 본격화

500만 화소급 카메라 모듈 개발

LG이노텍이 자율주행 부품 사업의 핵심 축인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차량센싱 솔루션 사업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500만 화소급 RGB-IR(적외선) 겸용 센서를 장착한 '차량용 RGB-IR 고성능 인캐빈카메라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성능 인캐빈 카메라 모듈은 차량 실내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룸미러, 보조석 상단 등 다양한 위치에 장착이 가능하다. 졸음운전,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거나, 보조석 및 2열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



차량용 RGB-IR 고성능 인캐빈카메라용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하는 등 차량 내부 인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약 5배 높은 500만 화소로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더 정확하게 탑승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 고도화될 때 필요한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최고수준 보안 인증

과기부 IoT 스탠다드 인증 획득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최고수준(스탠다드) 보안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 가전은 녹스로 보호되고 있다. 삼성 녹스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중 방어 형태의 보안 플랫폼이다.

삼성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품들이 서로 연결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나섰다. 인공지능(AI) 가전 시대에 기기

간 연결로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문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크로스 플랫폼, 크리덴셜 동기화 등 기술을 내년 출시할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등 주요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유미영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AI 가전 신기술만큼이나 보안 솔루션도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사용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AI 가전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전자 “씽큐로 맞춤형 스마트홈 만드세요”

API 전면 개방... 개인·기업 구분 다양한 플랫폼 통합 연결 가능해져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전면 개방한다. LG전자 제품으로 손쉽게 똑똑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최근 LG 씽큐의 API를 공식 개방하는 'LG 스마트솔루션 API 개발자' 웹사이트를 열었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연결 고리'다. 개발자들은 개방된 씽큐의 API를 통해 다양한 LG



LG 씽큐의 API를 활용해 구현한 스마트홈 연출 이미지. /LG전자

전자 제품 데이터와 기능을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가져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LG 씽큐의 API는 개인 사용자용 '씽큐 API'와 기업 파트너용 '씽큐 비즈니스 API'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

정이나 빌딩 등에 설치된 LG전자 제품의 원격 제어, 다양한 플랫폼과의 통합 연결 등이 가능해진다.

개인을 위한 씽큐 API는 다양한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LG 씽큐 앱에 등록된 가전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씽큐 API를 활용하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홈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기업용 씽큐 비즈니스 API는 사무실·주거용 빌딩을 운영하는 파트너사가 가전부터 냉난방공조, 사이니지 같은 상업용 설비까지 다양한 LG전자 제품을 기존 앱에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J중공업, 677억 규모 MRO 사업 수주

해군 독도함·고속상륙정 창정비

HJ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원 규모의 해군 독도함 창정비 사업과 25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의 대형수송함(LPH-I)과 고속상륙정(LSF-II) 외주 창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두 건의 수주 금액을 합산하면 677억원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의 대형수송함 독도함을 100% 자체 설계, 건조한

HJ중공업은 2022년 수주한 독도함 성능개량사업에 이어 창정비 사업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돼 국내 MRO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해양 방위산업체로서 50여 년간 함정 건조와 창정비를 통해 쌓아온 기술력이 수주 성사 비결"이라 평가하며 "우리 해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창정비 임무 역시 완벽히 수행할 것이며, 해외 MRO 시장 진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배터리셀 냉각 소재 개발

진동형 히트파이프로 안정적 열 관리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과열을 방지해주는 새로운 배터리셀 냉각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냉각기술

을 확보하고, 이를 상품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알루미늄 합금과 냉매로 구성된 진동형 히트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배터리셀 사이사이에 배치해 급속 충전 시 치솟는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일반 알루미늄보다 10배 이상의 열 방출 성능을 갖춘 진동형

히트파이프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열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용 배터리 냉각에 이를 적용하고, 양산 체비를 갖춘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초고속 충전 지원 여부가 중요한 하이엔드 전기차에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완성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 홍보와 영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MM, 인도~유럽 구간 신규 서비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HMM은 내년 2월부터 대서양 및 인도~유럽 구간에 신규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과 미주지역을 잇는 TA1과 인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INX가 신설된다. 특히 TA1은 주요 원양 항로의 하나로

2018년 서비스 종료 이후 7년 만에 재진출하는 항로다.

TA1은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시작되며, 4600TEU(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0척이 투입돼 왕복 총 70일이 소요된다. INX는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 첫 출항하며, 60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이 투입돼 왕복 77일이 소요된다.

/양성운 기자